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
		배포일시	2018. 8. 27.(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항행시설과	담 당 자	• 과장 배소명, 사무관 황순하, 주무관 장경준 • ☎ (044) 201-4360, 4362
	국제항공과	담 당 자	• 과장 김정희, 사무관 김수정, 주무관 신경 • ☎ (044) 201-4213, 4214
보 도 일 시		2018년 8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8. 27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회원국 9개국 인사 초청 연수 8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서 개최...항공정책·교류 통한 국제위상 강화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8월 28일부터 3일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말레이시아, 에콰도르 등 ICAO 회원국 9개국*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“항공정책 및 전략관리 연수”를 실시한다.

* 방글라데시, 네팔, 브루나이, 피지, 오만, 파키스탄, 트리니다드 토바고, 에콰도르, 콜롬비아

□ 이번 연수는 국토부가 지난 2001년부터 ICAO와 공동으로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 추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실시해오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, 고위급 초청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행사이다.

○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주관하는 환영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항공정책에 대한 소개, 4차 산업혁명·첨단 공항·드론·항공산업의 미래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뤄지고, 인천공항 등 주요 산업현장·전통문화공간·비무장 지대(DMZ)를 둘러보는 일정과 참가국 각국의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.

□ 그간 국토부는 ICAO의 『No Country Left Behind』 정책*에 따라 회원국 간 균등한 항공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'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30여 개국, 2,100여 명의 항공종사자에게 항공분야 기술·제도 관련 교육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, ICAO와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지지와 호응을 얻고 있다.

* ICAO 회원국들에게 국제기준과 정책이행의 중요성을 알리고, 항공선진국이 개도국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을 통하여 회원국 모두가 함께 빠짐없이 적정 수준 이상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해 국제항공분야 발전이 지속 가능하도록 기여

○ 특히, 올해에는 현지(파라과이, 콜롬비아)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확대 실시하는 등 지난해 비해 7% 증가한 310명에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공항행정책관은 “항공 분야는 무엇보다도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며, 앞으로도 교육 지원 확대 등 ICAO 회원국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”이라고 밝히며,

○ “그 중에서도 이번 고위급 초청 연수는 각국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고위급 인사들과 각 국의 항공정책과 이슈를 공유해 모두가 동등한 민간항공 공동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”되며,

○ “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내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ICAO 총회에서 7연임 이사국 선임을 달성하는 등 국제항공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황순하 사무관(☎ 044-201-43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